

‘유달산 둘레길’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나무 심고 노면 정비

목포시가 ‘유달산 둘레길’에 수목을 식재하고 노면을 정비해 생태환경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3월 유달산 주차장입구부터 대학로 목포의 눈물 노래비 앞 100m 구간과 유달산 주차장 입구~목포시사당 400m 구간에 동백 등 수목을 식재하고 노면을 정비했다.

이어 시는 6월 말까지 해인여고 뒤 육곡원~어민동산 구간 400m 구간에 둘레길을 완성한 후, 아리랑 고개~유달산 휴게소 700m 구간도 올해 안에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유달산이 시민들의 운동 및 휴식 공간으로서 특색을 하고 있어 이곳을 도심속 허파기능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정비에 나섰다.

시는 언제든지 시민이 즐겨 찾고 삶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둘레길 안전데크 설치와 쉼터 조성 등 ‘유달산 둘레길’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정중득 시장은 “시민들이 유달산에서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 정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유달산(해발 228m)dms 푸른 다도해와 목포항의 야경이 어우러진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목포의 명산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을 9개 공모사업 선정 목포문화재단 사업 활발

목포 문화재단과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목포 시립도서관, 목포 어린이도서관이 올해 9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3660만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아 짜임새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 문화재단은 ▲꿈의 오케스트라 ▲가족 오케스트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3개 사업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1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소외계층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리듬·음악교육·관련 악 연주 등을 교육시키고, ‘가족 오케스트라’는 학부모 및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악기연주와 합창, 관현악 합주 등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목포 시립도서관은 ▲문화학교 ▲인문독서 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 ▲목포 주말학교 등 4개 사업에 선정, 4960만원을 지원받아 5월부터 12월 까지 운영한다.

목포 어린이도서관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목포 주말학교 등 2개 사업에 선정돼 2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말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며, 목포 주말학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클레이아트 공예와 주산·양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목포 문화재단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알콩 달콩 바다생물 이야기’ 특별기획전

어린이 바다과학관 연말까지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바다생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알콩 달콩 바다생물 이야기’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 기획전은 43개의 별칭 구조 전시대에 각각의 다양한 바다 생물 표본을 선보여 실제 바다 속을 보는 듯한 교육적 체험형식으로 꾸몄다.

물을 전시해 과학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흥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해양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최초의 생명이 시작된 바다 생태계의 소중함과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양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6·4 지방선거 표발 점검

‘1강 2중’ 구도 속 무소속 단일화 최대 변수

목포시장

목포는 전남의 정치 1번지다. 그만큼 목포시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크다.

그동안 목포의 발전이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지역에 비해 강하다.

▶판세=후보 등록이 마감된 목포시장 선거는 6차 대결 구도로 형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따낸 이상열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송환 후보, 정의당 허정민 후보, 무소속 박홍률 후보, 무소속 김중익 후보, 무소속 홍영기 후보 등이다.

일단 판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열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형성한 가운데 무소속의 박홍률, 홍영기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는 ‘1강 2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목포가 과거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것처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에서 분루를 삼킨 이후, 절치부심해왔던 이상열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높은 인지도로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배운태 전 전남도 부지사를 5.92%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이상열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7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입법(국회의원),사법(변호사),행정(노동부 행정사무관)을 모두 아우른 경력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 후보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목포 건설”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인데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도 강해 과거와 같은 제1야당 후보에 대한 무조건 지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무소속의 박홍률 후보와 홍영기

목포시장 후보



Table with 6 columns: 정당 이름, 경력, 주요 공약. Lists candidates and their backgrounds and promises.

이상열 유리한 고지...박홍률·홍영기 추격전

후보가 배수의 진을 치고 박대를 다지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무소속의 박홍률 후보는 지난 2010년 목포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33.98%(2위)의 지지를 획득한 바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고교 교사에서 국정원 충북도지부장을 지낸 경력을 지닌 박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목포 바닥을 땀과 눈물로 다져왔다는 점에서 역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전남과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무소속 홍영기 후보도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다. 홍 후보는 ‘선거 혁명, 시민의 힘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민심 속을 파고들고 있다.

진보 진영 후보들도 서민과 노동자 계층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골목 골목을 누비고 있다.

금속노조 부지부장 출신의 통합진보당 이송환 후보는 구 민노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정의당의 허정민 후보는 목포시의회 부의장을 지내며 넓혀온 인맥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목포 경찰청 사무처장 출신의 무소속 김중익 후보도 시민사회 활동을 토대로 형성된 지지층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변수=목포시의 유권자는 18만6000여명이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50% 전후로 가정할 때, 9만명 정도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5만표를 얻으면 당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소속의 박홍률, 홍영기 후보의 단일화가 목포시장 선거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가 무소속 출마로 32%의 지지를 얻은 바 있어 단일화 바람이 분다면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두 후보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열 후보에 맞서는 강력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목포시장 선거는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두 후보 진영에서는 현 정정목 목포시장이 과거 이상열 국회의원의 시절,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목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정치적 유산을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 후보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 여부며 후보단일화의 이슈를 바다 민심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과거 총선에서 박 의원과 이상열 후보가 충돌한 적이 있어 아직까지 양극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 측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私)라는 입장지만 이 후보와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조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영준기자 tuim@kwangju.co.kr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5곳 중 2곳 새정치 단독후보 무혈입성... 치열한 경합 없을 듯

도의원

목포지역 전남도의원 선거는 별다른 흥행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전체 다섯 곳의 선거구 가운데 두 곳이 새정치민주연합 단독 후보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제1선거구의 강성휘 후보와 제2선거구의 권옥 후보가 단독 후보로 전남도의회에

무혈입성하게 됐다.

제3선거구에서는 전 목포시의원 출신의 고경석 후보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부비서관 출신의 무소속 조명재 후보가 진검 승부를 펼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4선거구에서는 현역 도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탁 후보와 여성 주자진 노동당의 홍길순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제5선거구는 3차 구도로 형성됐다.

같은 목포시의원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배준범 후보와 무소속의 전경선 후보, 정의당의 박기철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목포 도의원 선거가 무리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목포의 정치적 미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쟁 없이는 미래의 정치적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영준기자 tuim@kwangju.co.kr

목포 도의원 후보

Table with 3 columns: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주요 공약. Lists candidates and their backgrounds and promises.

* 민=새정치민주연합, 노=민노당, 정=정의당, 무=무소속

Advertisement for Chilman brand waterproofing products. Features text like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ilman Co., Ltd.

Advertisement for Puriom (프리모) brand wallpaper. Features text like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and '59만원'.